금주의 법구-〈법구경〉
원망만으로는 원망을 풀 수 없다.
원망을 떠나야 이를 풀 수 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9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2 1994~2016 제1117호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전법중심도량 관심 저하 '현장 포교 컨설팅' 시급

조계종 전법도량 재인가 신청률 급감 '비상'

오는 2021년까지 전법중심도량을 300곳(현재 123곳)으로 지정,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종책에 먹구름이 꼈다. 현재 지정된 전법중심도량들의 재인가 관심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당초 "8월 30일까지 전법중심도량 재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지난 8월 12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했다. 재인가는 전법도량마다 2년 단위로 이뤄지며, 올해 대상 사찰은 2014년도 신규 등록한 5곳과 기존 전법도량 80곳 등 총 85곳이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재인가를 신청한 전법도량이 절반을 밑돌았고, 결국 포교원은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신청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포교원은 10월 초까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미신청 사찰에 연락해 재인가를 독려했다.

이 과정서 현재(10월 4일 기준)까지 전법도량 재인가를 신청한 사찰은 85곳 중 47곳. 55% 수준이다. 2015년도 35곳(100%), 2014년도 68곳(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확인결과 주지 및 소임자 교체 등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사찰이 다수 있었지만 현행 전법도량 제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혜택 없이 보고서만 작성

전법도량 재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찰 관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혜택'과 '번거로운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포교활동은 전법도량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도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얘기다.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사찰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인가 의지가 없는 사찰이라 하더라도 지정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재인가 보류상태'로 남아 대상 사찰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영남권 어린이포교를 담당하는 A사찰 관계자는 "대형사찰은 소임자가 따로 있고, 지도법사에 대한 복지 또한 준수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개개인에게 업무가 과중한 작은 사찰은 보고서 하나도 무거운 짐이 된다. 대단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B사찰 관계자는 "우리는 어린이법회가 없다. 어린이집만 운영하는데 종단서 전법도량을 권유하기에 응했다"면서 "지난 재인가 때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대신 구두로 의지만 밝혀달라고 해서 말만 했다. 올해도 (종단서) 전화가 와서 난처함을 알렸지만 재인가 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법중심도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따르면 전법도량에 제공되는 혜택은 △종단서 개발된 교구재 및 프로그램 우선 지원 △사찰 연계한 종단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 지원 △전법도량 간판 게시 △포교사 자원봉사 지원 등이다. 교구재 및 프로그램은 종단 차원서 개발되는 게 많지 않고, 전법도량이 아닌 사찰이 교구재를 요청했을 때 '전법도량 미신청'을 구실로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찰과 연계한 종단사업 역시 극히 드문 사례다. 일선에서 지역포교를 담당하는 사찰들이 전법도량에 대해 체감온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85곳 대상 사찰 중 55%만 신청
8월 마감서 9, 10월 3차례 연장
2014 · 2015년보다 현저히 감소
현장선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포교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법도량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포교를 위해선 지역 실정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이 절실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매뉴얼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국에 보급돼 있는 포교 매뉴얼의 대부분은 2000년대 중후반 제작된 것으로 법요집 · 지침서 · 동영상CD 등이다.

서울 도심서 포교하는 C사찰 주지 스님은 "올해 전법도량 재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려다 사명감으로 했다. 어린이법회 아이들은 고정적인데 종단서 보내준 단주만 계속 쌓이고 있다"며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및 사찰 특성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사찰 지도법사 스님은 "요즘 아이들이 한 살만 달라도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지적으로 성숙하고 예민하다"며 "각 학년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법문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종단 자료로 해결할 수 없다. 포교 컨설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새 포교종책을 발표한 포교원도 최근 현황을 분석하며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연구자 · 실무자 회의와 지역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포교원 측은 "현행 제도가 신청만 받는 수동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개별 사찰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모범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춰 변화시켜 보급하고, 열린 플랫폼서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서 "50개 이상의 전법 프로그램을 발굴해 어린이 ·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교구차원의 접근'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방법을 만들어 제공하는 건 종단 의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구 포교국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포교전문가들을 모아 대안을 연구하고, 교육받은 신도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창간 22주년 특집 INDEX

선지식에게 묻는다 A6
월서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한국불교의 변곡점 A9~12
다불교 & 탈종교

그대는 자비보살 A14 · 15
만오 스님 부산 도원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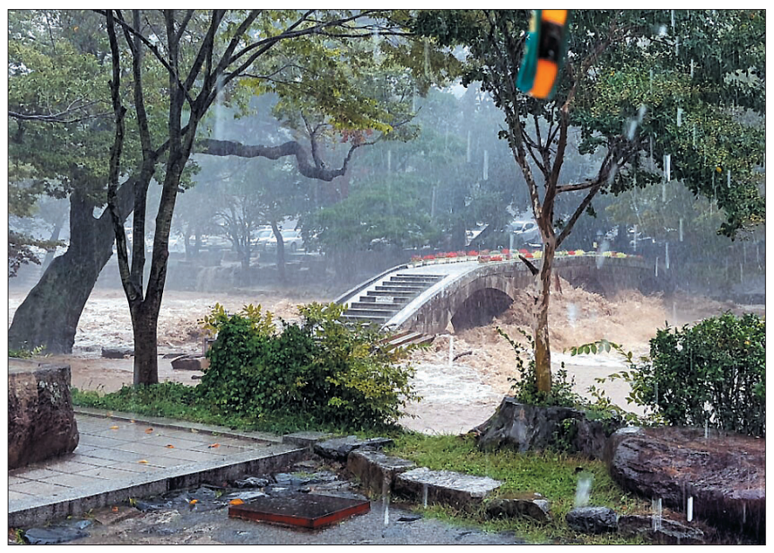
100만독 정진 원력, 세세생생 이어지리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주지 무원)가 진행하는 '좋은일 실천수행 법화산림 백만독 관음정진' 수행에 동참한 신도 2000여명이 정진삼매에 빠져있다. 100만독은 10월 1일 결제를 시작해 2017년 1월 8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천태불자들은 100만독 정진 기간 동안에는 좋은일 실천 수행자경문에 매일 '일일일선'을 실천하고 기록하며, 자신을 점검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10월 태풍으로 불교계 피해 '막대'

통도사 다리 유실 등 피해
주말 개산대재도 축소 운영
조계종, 6일 긴급구호단 급파



통도사 삼성 반월교가 불어난 물에 휩쓸리고 있다. 통도사는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로 인해 개산대재 일정을 축소했다.

지난 10월 5일 한반도 남부지역에 들이닥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사망 7명 실종 3명을 비롯해 이재민은 총 90세대 198명이 발생했다(10월 6일 기준). 특히 양산 통도사 등 불교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양산 통도사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경내 일승교가 무너져 빗물에 유실됐고, 월영교 다리가 끊어졌다. 또한 산문 옆 소나무가 부러지고 경내 소나무 20여 그루가 뽑혔으며, 공양간 및 경내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는 10월 8~9일 예정된 개산대재 중 8일 괘불이운을 비롯한 괘불헌공, 다례재, 들차시음회 등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통도사는 "태풍 피해로 인해 행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암자도 피해가 잇달았다. 서운암과 자장암은 산사태로 둑이 무너졌고, 치운암으로 가는 다리가 파손돼 진입이 불가한 상태다.

아울러 10월 7~19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서 예정됐던 BBS불교방송 주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도 10월 21~23일로 연기됐다. BBS 측은 "태풍 영향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비에 젖은 사적지 잔디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10월 6일 울산 태풍 피해 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총재 자승) 선발대를 급파했다.

조계종 측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속 집계돼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긴급구호단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다"며 "현장조사 실시를 통해 지원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긴급구호단 선발팀은 손상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장을 필두로 울산 현지 인력 10여명과 결합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성미 · 박아름 기자

